

회의명	제2회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4년 4월 19일(금) 15:30 ~ 16:40 학교운영위원회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 12명 중 10명 참석 참석교직원 : 1명
회의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상정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4.9.1.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 심의(안) 	
심의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000): 1일로 결정하고자 함 - 질의사항 없음 나. 결정사항: 1일로 결정(찬성 10표, 반대 0표) 	

심의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2024.9.1.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 심의(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자(000):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제도로써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하여 학교 자율화와 책 	

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학교는 2024년 8월 31일자 교장선생님 공모 임기가 만료되어, 이번에 후임보충이 필요하여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모 유형에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내부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부형이기 때문에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도 전임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 결원 학교의 2/3 범위 안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이 된다면 공고를 올리고 지원자를 받아 1차 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1차 심사 후 3배수를 추천하게 되며 2차 심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2차 심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합니다. 이후 순위 명기하여 학교장,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추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1명을 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외 추진일정과 주의 사항들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 투표 결과 소개▲

학부모는 294세대, 교직원은 56명이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는 95.9%, 교직원은 92.9%가 교장공모제에 찬성하였습니다.

찬성한 학부모 세대와 교직원 중 교장자격증 외 15년 경력 이상 교육공무원 지원 동의에는 학부모세대 79.1%, 교직원 94.2%입니다.

○ 제안자(000): 학교운영위원님들의 결정사항으로는

첫 번째,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

두 번째, 15년 경력 이상 교육공무원 지원 가능 여부

세 번째, 현임교 재직 교사 지원 가능 여부

네 번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방법

다섯 번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규모와 비율입니다.

○ 위원장(000):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장 공모제 신청 여부입니다.

투표 결과, 교장 공모제 찬성 의견이 90% 이상으로 이 의견을 받아들여 공모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들(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000):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전원): 없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에 찬성합니다.

○위원장(000): 그럼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는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15년 경력 이상 교육공무원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위원(000):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15년 경력 이상 교육공무원 지원 가능에 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 희망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반영하여 교장 자격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000):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전원): 없습니다. 15년 경력 이상 교육공무원 지원 가능 찬성합니다.

○위원장(000): 그럼 교장 공모제 자격 조건에 15년 경력 이상 교육공무원 지원 가능도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임교 재직 교원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위원(000): 현 교장선생님께서도 우리 학교에 재직하셨던 분으로, 혁신+학교를 잘 이끌어 오셨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실정 파악에 유리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우리 학교 재직 교육공무원도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 조건의 문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000): 현임교 재직 교사 의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전원): 없습니다. 현임교 재직 교사 지원 찬성합니다.

○위원장(000): 그럼 현임교 재직 교사 지원도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방법 결정입니다.

○제안자(000): 심사방법은 이전과 다르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방식으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류심사, 심층면접으로 진행되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는 상호토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법 2는 새롭게 생긴 방법으로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외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서류심사까지는 동일하지만, 선거인단 참관 하에 공개토론 후, 그 자리에서 투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원(000):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방법 2가 공모제 교장 선출에는 적합한 방법 같습니다만,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학부모님들 참석하에 공개토론

및 투표를 진행할 경우, 첫째 저조한 투표인단 참석률이 예상되고, 둘째 제도 취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여러 변수들 통제 관리 능력도 미지수입니다.

○위원장(000): 방법 2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경우로 예상됩니다. 1번 방법으로 심사단을 꾸려서 진행하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000): 그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방법은 1번으로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규모와 비율입니다.

○제안자(000): 구성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외부 10~30% 이며, 인원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최소 2번 이상 회의 소집관계로 너무 많은 수는 제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재직 교육공무원도 지원 가능한 바, 이 경우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10명으로 제안합니다.

○위원(000): 구성비율만 놓고 봤을 때, 학부모 5명, 교원 4명, 외부 1명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000):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전원): 동의합니다. 심사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찬성합니다.

○제안자(000): 한가지 더 결정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교원 4명을 선출할 때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투표에 앞서 ‘교직원’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위원(000): 교장 공모제 투표 범위도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원 심사위원 선출 투표 범위도 교육공무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000): 그럼 교직원 전체 회의 시 ‘교직원’의 범위는 교장 공모제 투표에 참가했던 교직원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000): 지금까지 교장 공모제 추진에 따른 5가지 결정사항에 대해 안건 심의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들 (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000)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자: 간사